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earch Products of Each 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 With an Emphasis on the Cultural Fields -

박 정 길(Jeong-Gill Park)** · 김 용 원(Yong-Wo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철학·사상 |
| II. 문화분야 관련 한·일 양국의 문헌 분석 | 3. 종교 |
| 1.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문화 관련 문헌의 분석 | 4. 예술 |
| 2. 일본에서 생산된 한국문화 관련 문헌의 분석 | 5. 어학 |
| III. 한·일 양국 문화분야 지식정보의 내용과 특성 | 6. 문학 |
| 1. 문화 | IV.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지난 1세기 동안(1900~2000) 한·일 관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분석, 해석한 것이다. 특히 문화분야를 1)문화, 2)철학사상, 3)종교, 4)예술, 5)어학, 6)문학으로 구분하여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문화분야를 조사, 연구한 단행본의 종합목록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양국의 문화분야 연구물 생산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 계량서지학적 분석과 질적 해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본이 한국보다 문화분야의 단행본을 더 많이 생산하였다. 그러나 최근 15년간(1985년 이후 지금까지)에는 일본보다 한국이 문화분야 단행본을 106종 가량 더 많이 생산하였음이 밝혀졌다.

주제어 : 한·일 지식정보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and studies all the publications as well as the flow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during the 20th century, especially in the area of culture. For the purpose of the systematic study, the subject area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ix parts, 1) Civilization at large, 2) Philosophy, 3) Religion, 4) Arts, 5) Language, and 6) Literature. As the result of the study, a union catalog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from both countries has been produced. The union catalog has produced that more publications have been issued in Japan than in Korea in every part of the subject. During the part 15 years, however, Korea has produced over 106 publications more than Japan.

Key Words :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Korea-Japan relationship

* 이 연구는 1998~2000년도 한국한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KRF-98-005C00479)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교수(jkpark117@star.kyungshu.ac.kr)

*** 일본쓰루가다이대학 교수

· 접수일 : 2002. 5. 15 · 최종심사일 : 2002. 6. 3 · 최종심사일 : 2002. 6. 12

I. 서론

한·일간의 관계는 일의대수(一衣帶水)에 비견되는 인접한 사이로서 지리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도 그 유사성과 공통성이 많은 반면 양국간의 이질성과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미묘하고도 난해한 부분도 부지기수이다.

한·일간의 역사적 교류 가운데에는 선린친선의 우호적 관계도 있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조망해 볼 때 일본의 침탈로 인하여 불행한 역사와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역사적 실체와 사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로 인한 피해의식과 감정에 사로잡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지난 19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細川護熙 총리는 경주에서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며 선린친선 우호관계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언동들은 별로 나아진게 없을 정도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망언을 일삼고 있다. 실례로서 1995년 6월에 있는 渡邊美智雄 전외상의 ‘한일합방조약은 평화적으로 성립되었으며...’ 운운 따위의 망발이라던가, 자민-사회연립내각이 제출했던 「전후 50년 결의안」, 2001년의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등등은 한·일관계를 더욱 꼬이게 하거나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자국주의적 과거역사 해석과 날조,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황국사관적 역사의식을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소위 탈냉전시대이며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구화(globalization)경향이 본격화되는 국가간, 국민간 상호의존적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향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적대시하며 경원시 한다는 입장은 소아병적 사고에 불과할 뿐 양국의 장래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 지구화시대 신국제질서의 형성기라는 현재의 역사적 맥락에서 한일 양국은 싫든 좋든 ‘멀고도 가까운 나라’의 관계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할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세기에 진입한 현재의 시점에서 향후 한일관계가 상호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관계에서 교훈을 얻고 꼬인 매듭을 속 시원히 풀어나가면서 발전적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조사, 연구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1) 권기돈. “지구화시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정립방향”, 《韓日研究》 第8輯(1995. 10), pp. 307-308.

이를 위해서 본 연구팀은 양국간의 대립과 갈등 구조하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분석, 평가해 보는 것은 21세기로 진입한 현재의 상황에서 긴급하고도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에 있어서 조사, 연구의 주제범위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분야 14개 주제영역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단행본(번역서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 해석하고자 한다.

원래 본 연구의 초기에는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이 생산한 연구주제 관련 단행본을 비롯하여, 연구논저,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발표문, 기요 등 관련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 평가, 해석하려 했으나 현실적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고 시간적 제약도 수반되어 애초의 계획과 의욕대로 추진, 실현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 장(章)에서는 「문화」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한·일 양국이 지난 1세기동안(1900년-2000년) 서로 상대국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문헌 속의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이 4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1기 : 식민통치시기(1900-1945)

제2기 : 단절의 시기(1946-1964)

제3기 : 탐색의 시기(1965-1984)

제4기 : 교린의 시기(1985-2000)

위와 같은 4단계 시기 구분은 본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인 최정태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원용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시기별로 생산된 한·일간 문화분야의 지식정보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과 경향 및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문화분야의 소주제로서 1)문화, 2)철학·사상, 3)종교, 4)예술, 5)어학, 6)문학의 6개 주제 관련문헌을 주제별, 시기별로 그 현황과 특징을 분석할 뿐 아니라 한·일 양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일 양국 간의 문화 교류는 물론 상호간의 문화이해 및 수용에 참고가 되며, 이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나 학술연구자들, 일본관계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연구 및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Ⅱ. 문화분야 관련 한·일 양국의 문헌 분석

<표 1>은 지난1세기 동안(1900년-2000년)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문화분야(문화, 철학·사상, 종교, 예술, 어학, 문학의 6개 주제영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문헌(모두 단행본)의 시기별, 주제별 발행 내용이다.

<표 1> 한·일간 문화분야단행본의 시기별·주제별 발행현황(단위: 발행종수)

구분	발행년도	문화	철학·사상	종교	예술	어학	문학	계
한국	제1기(1900-1945)							
	제2기(1946-1964)	5	2		1	1	2	11
	제3기(1965-1984)	27	6	5	3	31	17	89
	제4기(1985-2000)	242	31	21	26	96	72	488
	발행년도 미상	1				1	2	4
	계	275	39	26	30	129	93	592
	주제별 비율	46.5%	6.6%	4.4%	5.0%	21.8%	15.7%	100%
일본	제1기(1900-1945)	90	50	36	45	61	55	337
	제2기(1946-1964)	5		1	5	12	7	30
	제3기(1965-1984)	49	13	23	72	58	31	246
	제4기(1985-2000)	147	16	31	72	83	33	382
	발행년도 미상	2			2			4
	계	293	79	91	196	214	126	999
	주제별 비율	29.3%	7.9%	9.1%	19.6%	21.4%	12.6%	100%

참고자료 : 「한·일 관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1~2차 년도(1998~2000) 연구과제 중간보고서에서 보완, 발췌함.

위의 <표 1>의 문헌분석을 토대로 한·일 양국의 문화분야 간행물의 발행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난 한 세기동안 「한국의 일본에 관한 연구물」 중에서 문화분야의 단행본은 조사된 인문사회과학분야 문헌 전체 3,531종 가운데 592종으로서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사회분야 다음으로 3번째 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관한 연구물」은 모두 7,011종으로서 이 중 문화분야는 999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여 5개 주제 가운데 4번째의 발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문화분야의 조사, 연구면에서 생산된 문헌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계량적 수치로 1.6배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연구물 중 한국문화분야가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한국문화에 대한 가치저하의식과 경시적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

기 때문이며, 일본의 문화우월주의적 경향의 소치라고 생각된다.

다음, <표 1>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문화분야관련 한·일 양국의 단행본을 시기별로 고찰해보면, 「한국의 일본문화에 관한 연구물」의 단행본 592종 가운데 제1기(1900-1945)에는 전무하였고, 제2기(1946-1964)는 11종 출간되었으나 종교주제 도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3기(1965-1984)에는 모두 89종, 제4기(1985-2000)에 들어와 전체의 82.4%인 488종이 출판되어 문화분야 단행본의 급증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제4기는 「교린의 시기」로서 1985년 한일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계기로 일본에서 '한국붐'이 조성되고 일본의 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왕래하고, 한국의 일본유학생이 대거 증가하였으며, 국내 대학에 일본어문학관계 학과가 대폭 개설되어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양국의 관계사가 정립되고, 쌍방간의 연구활동이黎明期를 지나 활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문화분야 관련 연구물을 최초로 생산한 것은 1931년 유정수가 쓴 「일본 풍속사 개설」이다. 일본이 한국문화분야 관련 연구물을 최초로 생산한 것은 1900년 加藤文教가 쓴 「韓國開教論」이다. 그 다음해인 1901년 小川隆三이 쓴 「渡韓見聞錄」이 두번째 출간된 한국문화관계 서적이다. 그리고 문화분야 출판물에 있어 일본이 한국보다 30여년이나 앞서 연구물을 생산했음은 아마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서양문물을 유입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학문을 발전시킨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한국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전 준비활동 내지는 피지배국의 문화를 면밀히 분석, 해부하여 식민지 지배정책 입안에 참고하기 위한 예비적 탐구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나 추정이 된다.

1.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문화관련 문헌의 분석

다음은 한·일간 문화분야 간행물의 시기별, 주제별 발행내용을 <표 1>을 근거로 하여 먼저 한국의 일본 문화분야 생산물의 발행내용을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계 출판물은 제1기인 1900년에서 1945년까지 전무하다가, 제2기인 1946년부터 1964년까지 5종, 제3기(1965년-1984년)에 27종, 제4기(1985년-2000년)에 242종이 발행되어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증가현상을 보인다. 제1기(1900-1945)동안 문화분야 간행물이 전무했던 것은 한국이 일본의 피지배국으로서 일본의 문화를 연구할 조건도, 당위성도,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우리문화의 수탈과 빈사상태의 억압적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문화의 암흑기였었다. 한국의 일본문화관계 단행본이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조금씩 출판되다가, 한·일간 여러부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일본문화관계 연구단체, 학회, 대학의 일어일본학과 개설의 증가, 일본을 알리는 현실적 인식의 제고로 인하여 일본 문화 연구물이 상당 수 발간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둘째, 철학·사상관계 단행본은 제1기에는 전무하고, 제2기에 2종, 제3기에 6종, 제4기에 31종으로 역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철학·사상관계 출판물이 1900년에서 1945년까지 전무한 이유도 전항의 문화적 내용과 그 역사적 배경과 현상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종교관계 연구물은 제1기, 제2기까지는 전무하고, 제3기 5종, 제4기 21종이 조사되었다. 종교분야 역시 1900년에서 1964년까지 전연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철학·사상 분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예술관계 연구물은 제1기 전무, 제2기 1종, 제3기 3종, 제4기 26종이 조사되었다. 예술관계 출판물이 제1기에 전무한 것도 앞의 현상들과 유사하며, 그 이후에도 일본의 예술관계 단행본이 소수인 것은 일본예술에 대한 한국인의 무관심과 일본의 예술적 작품이나 질적인 수준이 한국 예술인의 연구대상이 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며, 조국 광복 후 일본과의 문화교류가 한동안 단절상태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예술인들 간의 교린 왕래도 거의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다섯째, 어학관계 단행본은 제1기 전무, 제2기 1종, 제3기 31종, 제4기 96종이 조사되었다. 어학분야 역시 제1기의 시대에는 우리의 언어가 폄박받은 시기였고, 일본어학에 대한 반감과 심리적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이며, 그 후 한·일 국교 단절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희박하다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일본어학관계 연구물과 단행본이 서서히 발간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물들이 출판되고 있다. 한·일 간의 빈번한 교류와 현실적 필요성은 그 분야 출판물의 증가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여섯째, 문학관계 연구물은 제1기 전무, 제2기 2종, 제3기 17종, 제4기 72종이 조사되었다. 일본문학분야 단행본은 식민지 통치기와 종전 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까지 불과 몇 종 정도에 불과했으나 국교 정상화와 그 이후 각 대학에 일본어문학계통학과가 많이 개설되면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일본어문학관계 학생들과 교수, 연구자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단행본 발간이 활발해지고 있다.

2. 일본에서 생산된 한국문화관련 문헌의 분석

이번에는 일본의 한국문화분야관계 단행본의 발행내용을 분석,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계 단행본은 제1기 90종, 제2기 5종, 제3기 49종, 제4기 147종이다. 일본은 1세기 전부터 한국의 문화전반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들의 한국지배정책에 이용하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종전 후부터 한·일 국교수립이전까지는 불과 5종의 연구물 밖에 안 보이다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늘까지 거의 200종 가량의 연구물을 생산하여 한국을

속속들이 연구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문화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단행본이 다른 주제분야와는 특이하게 그 점유율(29.3%)이 높은 편이다. 이것은 어쩌면 저들의 자국문화 우월주의에서 발현된 독단과 교만성이 그 원인일 수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 연구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추구는 물론 한국의 전문화에 대한 심도있고 철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이 개화하여 서양문물과 사상을 유입하여 문화수준이 우리보다 앞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철학·사상관계 연구물 역시 제1기 50종, 제2기에는 전무, 제3기 13종, 제4기 16종으로서 일제침략통치시기에 가장 완성한 연구물을 생산하고 있음도 한국지배정책에 이용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철학·사상에 대한 단행본이 최근에 들어올수록 저조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확실한 분석 및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치 않다. 일본학자들의 고답적 자세와, 우리나라 철학·사상계에 대한 몰이해와 과소평가 자세의 결과가 아닌지, 아니면 우리나라 철학·사상계의 사정과 수준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셋째, 종교관계 연구물도 제1기에 36종, 제2기 1종, 제3기 23종, 제4기 31종으로서 일제 통치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에 대한 저서는 이미 1882년 「朝鮮佛敎の概略」²⁾이란 서적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한국불교에 대하여 이미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음이 <표 1>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종교에 대한 연구물이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은 양국의 종교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보기 드물게도 천주교 및 기독교가 번성일로에 있으나 일본은 신·불 종교와 저급한 잡신 종교국으로 머물러 있으며, 외래종교가 잘 전파되거나 토착화되기가 어려운 환경조건과 종교관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 일본인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과 종교의식이 그다지 강렬하지 않음과 특히 타국의 종교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지 않음으로서 자연히 한국종교 관계 연구물의 생산이 저조한 것 같다.

넷째, 예술관계 연구물은 제1기 45종, 제2기 5종, 제3기 72종, 제4기 72종이다. 한국통치기에 어느 정도의 조사, 연구물이 나왔으나, 종전 후 뜸하다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44종의 단행본이 최근까지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본예술문화관계 연구물이 30여종에 불과하나 일본의 한국예술분야관계 단행본은 190여종으로서 우리의 6배 이상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예술의 질적 수준이 저들보다 뛰어났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원래 문화나 예술현상은 모두 물처럼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을 지적하고 싶다.

다섯째, 어학관계 연구물은 제1기 61종, 제2기 12종, 제3기 58종, 제4기 83종이다. 한글말살 정책을 폈던 일본이 한국통치시기에 한국어관계 연구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였음도 저들의

2) 金龍煥, “解放以前 日本에 있어서 韓國佛敎研究 現況”, 《韓國民族文化》第16輯(2000. 7), p.159.

한국식민지배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다방면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현실적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한국을 보다 잘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어관계 단행본이 차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즈음 일본인의 한글 공부나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한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섯째, 문학관계 연구물은 제1기 55종, 제2기 7종, 제3기 31종, 제4기 33종으로서 일제식민 통치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물을 생산하였다. 이것 역시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저의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국교 단절시기에는 저들의 무관심과 학문적 분위기 탓으로 몇 종밖에 생산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국교정상화 이후 우리 문학관계연구 단행본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해석함이 옳을까? 아마도 이것 역시 일본인들의 한국문화 내지는 한국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풍조, 또는 한국어에 대한 해득능력부족 등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현상은 제1기인 한국강점기에 한국에 대한 조사, 연구가 가장 왕성하였고, 종전 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가장 저조하였다가 국교정상화 이후 서서히 연구물이 차츰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문화, 어학, 문학 영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단행본이 우리보다 1.3배 많으며, 철학·사상과 종교 및 예술분야에서는 3.9배 이상 우리의 각 분야를 주도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있음을 <표 1>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Ⅲ. 한·일 양국 문화분야 지식정보의 내용과 특성

1. 문화

한·일양국의 문화를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서 고찰해 본다면 동일문화권(同一文化圈)에 속한다. 그러나 양국의 문화요소 및 문화적 행동양식과 내용에는 동질성, 유사성, 공통성이 많은 부면도 있지만 그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와 여러 면에서 이질적이며 문화의 양태나 성격상 현격한 차이를 노정하는 특성이 발견되고 있다. 일본문화는 지리상으로 볼 때 아시아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그 이질성, 개별성, 독특성이 농후한 편이다.

두 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지역적 근접성 때문에 문화교류(culture exchange)가 빈번하였고, 특히 임진왜란 7년 동안과 한·일합방 36년간에 걸쳐 양국의 이질적 문화는 상호교류와 접촉 및 상호이해를 통하여 문화내용이나 문화양식이 매우 유사하여 소위 문화영역

(culture area)내의 유사성, 동질성, 공통성이 많아야함이 당연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와 원인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한·일양국의 문화교류는 이질문화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기 보다 일본의 침략적, 강압적 형태로 일본문화가 일방통행식으로 전파, 유입된 과정을 겪은 것이다. 한·일 양국가의 문화교류는 호혜 평등에 입각한 수평적 교류라기 보다 양국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배와 피지배적 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이 수직 확산적 형태를 취해 왔다고 보겠다.

고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문화나 한반도 문화가 일본열도로 전파되어 일본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일단 대륙문화를 전수 받은 일본은 그들 고유의 문화에 유입문화를 취사선택, 접목시켜 그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고, 그것을 다시 외국으로 전파, 확산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일본은 그들 고유의 문화에 대륙문화를 모방적 형태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근대 明治時代 이래로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일본적인 독특한 문화를 개발, 발전시켜 오늘날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은 물론 문화대국으로서 세계만방에 일본문화를 유포하고 전수시키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일본문화 확산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2차대전 후, 일본인 학자들은 한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무관심한 척 도사리고 기다리며 한국학 연구를 게을리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을 바로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학 연구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우려는 일본인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으며, 이미 1997년에는 동경외국어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대학입시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었다. 일본조선학회나 조선사연구회 등 역사분야의 학회가 지속적으로 한국관계 연구내용을 담은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회나 연구회 회원 중에는 한국어를 수준급으로 하면서 한국학자의 연구물을 번역, 소개하거나 한국에 와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학자, 교수, 연구원도 제법 등장하고 있다. 또한 동경대학의 문화인류학과나 동양문화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개 한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한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은 그들의 한국관계 저서나 논문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어진다.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에서도 일본연구학자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으며 많은 대학에 일본어문학 관계 학과나 일본문제연구소, 일본문화연구회 등이 상당수 설치되어 일본관계 연구보고서나 학술 논문, 단행본 등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1973년에는 일본학회가 발족되어 현재 회원수가 1700여명에 이르고 전국 56개의 일본관계 학과에는 재학생수가 2,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향후 일본관계 연구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연구하는 것만큼 일본을 객관성과 이성을 갖고 심층적,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문가의 선도없이 일본문화가 무질서하게 유입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나라이다. 특히 사회인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양국은 매우 상이하다. 한·일 양국이 한자문화권에 속한다거나 언어 체계가 유사하다거나 쌀이 주식인 농경방식, 사방이 해안에 면하여 수산업이 발달한 세계 굴지의 수산국, 그리고 神을 모시는 사당인 일본의 진자(神社)는 우리의 성황당이나 산신당과 그 기원과 기능이 유사하다.³⁾ 이에 反하여 이질적인 요소로서는 일본의 직계가족은 혈연성보다 계승선을 중시한다. 한국의 양자는 혈족 이외의 사람이 양자로 들어왔기가 매우 어려운데 일본은 꼭 그렇지 않다. 한국여자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본래 성(姓)을 유지하는데 비하여 일본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써야 한다. 물론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은 유교적 이념에 의한 문중(門中)이 존재하나 일본은 유교적 이념에 영향을 받았으나 門中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유교의 2대학과 중 주자학파보다는 현실적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양명학이 더 발달한 소치라 짐작된다.

흔히들 일본문화를 꼬집어 '섹스문화', '모방문화', '다도(茶道)문화'로 비하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동양유교 및 불교문화권에서 가장 성이 개방되고 성이 상품화되어 성도덕이 자유분방하다고 할까 문란한데서 연유되었으며, 모방문화는 일본이 외래문화, 특히 서구문화를 전수 받아 자기들 취향과 기호에 맞게 변용하는 기술과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며, 다도 문화는 중국에서 전래되어 그들의 문화생활과 정서에 합당하게 계발시켜 생활습관화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문화는 대단한 위력과 기세로 「세계속의 일본문화」로까지 발전, 확산되고 있다. 현대 일본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대국을 배경으로 「문화대국」을 표방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변화와 현상을 저들은 「新國家主義」(Neo-Nationalism) 또는 「일본 國家의 復活」이라 하면서 자체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표리부동(흔네·다테마에)한 일본 국민성과 이중구조적 성향의 민족성을 감안할 때 일종의 엄살 같기도 하다. 어떤 면에선 일본현대사에서 부상하는 「新國家主義」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같이 비춰지기도 한다.⁴⁾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문화교류를 지속해 오는 가운데 반목과 갈등을 넘어 침략자와 피지배자의 참담한 역사적 경험과 원한을 잉태하고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함축된 언어가 함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도 난해한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해 가야 할 처지이다. 실로 온갖 부면에서 펠레야 펠 수 없는 상호협력관계 속에서 문화적으로도 그 영향과 전달, 수용과 반발, 조화와 불협화의 문제들을 구조적, 심층적으로 면밀히 조사, 연구, 분석, 평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일본문화개방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하면서 우리들의 융통성도 살리고 일본문화의 태풍권내에서 주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3) _____, "日本속의 韓國研究, 韓國속의 日本研究", 《世代》160호(1997. 7), p. 88.

4) 林忠錫, "現代 日本文化論 -動向과 展望-", 《일본연구논총》 제8집(1993. 12), p. 207.

내에서 취사선택의 현명성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국민들의 총체적 지혜와 결단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흔히 일본문화의 저급하고도 대중취향적인 형태만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대중문화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고급문화, 즉 정신마저도 지배할 고급문화의 칼이 대중문화의 뒷전에 슬그머니 숨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⁵⁾ 결코 일본의 문화적 식민화, 문화적 동화정책에 흡수되는 불행만은 결단코 거부할 줄 아는 주체적 한국문화인으로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우리에게 던져진 배달민족의 지상명령으로 기필코 준수해야만 한다.

2. 철학·사상

한·일양국 공히 상대국의 철학 및 사상에 대한 연구물은 미미할 뿐 아니라 이 분야의 단행본 출간은 물론 연구논문 편수도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의 철학·사상은 근대이전까지는 대개 중국, 한국, 인도 등의 국가로부터 불교, 유교, 도교 등과 함께 불교철학·사상과 유교철학·사상이 전해졌으며, 근대이후부터는 서양의 철학·사상이 대개 원전의 번역형태로 전해졌으므로 일본의 철학·사상의 근저에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사상이 혼재하여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외래유입의 철학·사상이 일본에 널리 확산·유포되어 그들 본래의 철학·사상과 융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속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자국의 철학·사상을 명확히 정립, 체계화 하고자 하는 역사적 기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明治維新(1853-1877)을 발판으로 형성된 일본철학·사상이다.

1888년 6월 추밀원에서 천황이 입회한 가운데 伊藤傳文을 의장으로 하는 제국헌법 심의회가 개척되었는데 여기서 이등박문이 일본헌법제정의 근본취지를 선포하였다. 주요골자는 천황을 신격화하여 神國天皇으로 추앙하는 사상적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즉 일본국민 모두가 천황이란 신을 숭배하는 신자가 되어 무조건 천황을 추앙하되 자신의 문제는 물론 국가적 흥망성쇠, 자신의 행·불행까지 천황과는 상관없는 보편적 사고를 주입하여 천황에게는 조금의 원당이나 비난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무도 묻지 않고, 오로지 무한책임은 일본국민에게만 있다는 사상을 지니게 하였다. 그리하여 천황을 어버이로 추앙, 효도하는 하나의 단일가족국가 개념이 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사회제도와 사상의 근저에 깔려 있게 된 것이다. 즉 다시 언급한다면 천황을 우두머리로한 유기체론적 인간관,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을 지니게 하였다. 소위 이것을 국체사상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⁶⁾

5) 이기웅,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旅程』, 서울: 눈빛, 2001, p. 44.

6) 洪顯吉,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思想研究』, 《일본학보》 제30집(1993), pp. 165~166.

이러한 일본의 철학·사상이 서구로부터 유입된 서양사상과 어떤 관계하에서 발전, 형성, 유포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특히 구라과로부터 유입된 일본의 철학·사상은 久野取와 鶴見後俊輔에 의하면 관념론, 유물론, 실용주의, 실존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관념론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백엽파의 경우는 그들의 잡지 「白樺」을 통하여 자유와 세계주의적 사상을 새마을운동을 통해 확산시키려 활약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志賀直哉와 武者小路實篤는 그들의 소설과 「日本評論」에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유물론의 경우는 1922년 일본공산당이 결성될 정도로 일본지식인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갔으나 일본사상과 갈등하면서 1923년 일단 해체되어 지하로 은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사상은 강하게 역설되면 될수록 이를 제어시키는 기능으로서 지식인들에게 유물사상이 어필되는 것은 丸山眞男의 말처럼 일본의 지식인들이 유물사상을 통하여 사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⁷⁾

프라그마티즘의 경우는 유물사상이 심한 탄압속에 쇠퇴될 때인 1938년에 뉴딜정책 등 진보적인 정책에 의해 미국의 존.듀이 등이 주장하는 프라그마티즘이 들어왔다. 이 실용주의 사상은 교육사상으로서 교육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 실용주의교육이 발달하는데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실존주의는 하이데카, 야스퍼스 등이 주창한 철학사상으로서 관념론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利根哲郎은 하이데카의 현상론을 풍토론적으로 해석하여 일본사상으로 정립시키려 노력하였다. 일본인의 사유속에는 현세적인 특성이 있다는 中村元の 말처럼 일본인은 실존과 본질을 통합하여 실존적인 본질로서 天皇神을 생각하고 있다.⁸⁾

일본국민성 가운데 현실주의적 사상과 실존적 본질로서 천황신을 모시고자 하는 의식속에는 중국의 주자학이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명학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철학·사상을 고찰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인의 철학·사상은 대체로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이 대동단결하는 유기체론적 국가사회관인 국체사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것을 위한 제반 제도, 사회체제, 헌법과 교육칙어 등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문화의 근저와 배경에는 이러한 일본의 철학·사상이 도사리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과 역사속에서 싹튼 일본교육의 사상과 구미와의 교류로부터 유입된 외래사상을 모방, 통합, 조화, 정립시켜 일본의 독특하고 이질적인 철학·사상과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에 있어서 일본 철학·사상의 연구 동향을 간략히 기술해 보겠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본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의 철학·사상연구는 지금까지도 대개 3차례의 국제 학술발표회와 몇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그 첫번째의 학술발표회는 1976년 10월 30일 개최

7) _____, 위의 논문, p. 167.

8) _____, 위의 논문, p. 168.

된 「일본인의 美意識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내용은 일본학보 제5집(1977년)에 발표되었으며, 今道友信, 平川祐弘, 白璣株, 李營九 4인이 기술한 4편의 논문과 이의 종합토론이다.

두번째는 1990년 6월 28일 일본의 철학사상을 주제로 한 제12회 국제학술발표였다. 이 때의 발표자는 山田慶具, 辛島司朗, 姜錫泰, 韓端錫으로서 이들의 발표내용은 일본학보 제25집에 수록되어 있다.

세번째는 1991년 6월27일 열린 제13회 국제학술발표이다. 여기서의 발표주제는 일본철학사상의 중심기반인 「국학사상에 대한 연구」였다. 이 때의 발표자로서는 李元淳, 崔吉成, 上田賢治, 富田登이였으며, 이들의 발표내용은 일본학보 제27집에 수록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철학·사상과 관련한 연구동향으로서 「일본의 전통과 근대화에 관한 연구」(1994년, 제1회 발표), 「현대 일본사회와 문화에 관한 연구」(1975년, 제2회 발표), 「일본인의 종교의식에 관한 연구」(1977년, 제4회 발표), 「일본 천황제와 근대화의 연구」(崔吉成, 1991년), 「일본인의 도덕적 사고론에 관한 연구」⁹⁾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국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발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본에서 발간된 이 분야의 단행본, 학술발표회자료, 연구논문 등을 계속 탐색 중에 있으나 실제적으로 출간된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다.

3. 종교

일본은 그 지리적 환경과 잦은 천재지변, 즉 지진, 화산폭발, 태풍피해, 홍수, 산불 등 자연적 재해가 심한 섬나라인지라 국민들은 옛부터 초자연적, 초인간적 힘에 대한 경외와 신앙심이 매우 강한 민족이다. 초월적, 신비적 위력에 의하여 현실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온갖 종교가 무성한 나라, 즉 수많은 神을 숭상하는 소위 雜神의 나라가 되었다. 일본은 옛부터 그들 고유의 종교로서 「神道」를 발전시켜 왔는데 신도는 원시사회의 특징인 자연숭배, 정령숭배, 조상숭배의 범신론적 원시종교이다. 역사의 진전에 따라 대륙으로부터 불교, 도교, 유교가 전래되어 이들 종교로부터 그들의 환경과 취향에 맞는 요소를 취하여 원시종교와 혼합 발전시켜 일본 특유의 민족종교로서 기복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일본은 한 때 그들의 식민통치하에서 피지배 민족에게 神道を 강요했지만 신도는 고등종교가 아닌 하등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전 후 다른 나라에서는 그 종교적 자취가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다음 일본의 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에 인도에서 발생되어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파

9) 洪顯吉, 앞의 논문, p. 171.

되었다. 성덕태자는 고구려의 승려 혜자로부터 불교를 받아 들여 널리 전파, 숭상하였고, 그 뒤 백제로부터 불교건축기술자를 초대하여 法隆寺를 창건하였고 많은 사찰들을 각지에 건립하였다. 德川時代에는 정부의 보호를 받아 크게 융성하였으나 오늘날은 선조공양이나 장례식 불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의 불교는 神道와 같이 기복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불교와 신도는 상호보완 작용과 상호교류되고 융합되어 일본적인 독특한 신불신앙을 탄생시켰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신도와 불교 중 어느 한 종교에 귀속된 게 아니라 이 양 종교를 함께 섬기는 신불신앙인들이다. 이처럼 일본의 종교는 고래의 신도신앙과 불교의 다양성과 기복성이 혼재되어 일본인의 사상과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규범으로서 일본인의 인생관, 세계관의 근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오래 전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1903년 北川弘三의 「淨土宗韓國開教高志」는 한국불교의 무량수경·아미타경을 조사, 연구한 불교연구서이다. 1908년 館谷誠降은 「朝鮮の宗教」를 편찬하였다.

여기서 해방이전 일본에 있어서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 보려한다. 일본인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188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大谷派本願寺의 승려 奥村圓心이 1882년 「朝鮮佛教の概略」이란 글을 발표하였다.¹⁰⁾ 일본인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한일합방이후 주로 官學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최근에는 재일본 '한국유학생인도학불교학연구회'가 기획하여 「일본에 있어서 한국불교사상의 연구성과와 전망」(2000년 7월)이란 논문집을 펴낸 바 있다. 1945년까지 일본인에 의한 한국불교 관계의 저술, 논문, 잡문, 기행문, 보고서 등은 약 470여 편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서 불교미술관계 논문을 제외한 약370여편을 내용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불교의 개관과 역사-40편, 2) 신라불교-54편, 3) 고려불교-25편, 4) 조선불교-20편, 5) 고려대장경-47편, 6) 불교서지문헌-88편, 7) 일본불교의 개교와 근대한국불교사정-50편, 8) 전문록-14편, 9)기타-35편.

일본에 있어 한국불교에 관한 논문 및 글들을 출판연도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1890년대-4편, 2) 1900년대-24편, 3) 1910년대-95편, 4)1920년대-79편, 5) 1930년대-127편, 6) 1940~45년-40편.¹¹⁾

일본인들의 한국불교에 관한 연구자료는 다른분야 연구에 비하여 결코 질, 양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불교사에 관한 저술과 논문을 18편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사상 연구관계 저서들은 14편 정도가 들어나고 있다. 특히 고려불교의 연구는 「고려대장경」과 「대각국사 의천」에 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10편의 저술과 논문이 조사되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서지 및 문헌분야 연구물이 41편 정도 취합되고 있다. 일본인의 한국불교 연구가 해방이전에는 식민지배라는 정치적 도구로 수행된 점이 엿보이며 일본적 시각에 의

10) 金龍煥, 앞의 논문, p. 159.

11) _____, 위의 논문, p. 164.

해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한국 불교학의 기초를 확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¹²⁾

다음은 神道와 어떤 면에서는 유사성이 엿보이는 일본의 유교에 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교는 원래 타종교처럼 내세적, 초월적 대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 윤리적 교리가 강하여 현실생활과 실제적 행동양식에 근거하는 내용이 강하다. 일본의 유교는 종교적 특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향이 강한 양명학 쪽을 수용하여 일본 특유의 國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양한 유학 학파와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양명학계통이 성행한 것은 분권적 봉건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사들의 행동주의를 합리화하는 배경으로 이용하기에는 주자학보다는 양명학이 훨씬 유익한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유학은 중국이나 한국처럼 지배계급의 절대적 행동양식이 된 것은 아니었다.¹³⁾

다음은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본에 기독교가 유입된 것은 서기 1541년이였다. 카톨릭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엘」이 「가고시마」에 상륙하여 전도하기 시작하여 그 후 규슈, 류큐주 지방으로 전파되어 신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는 그들의 정치사상과 체제에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1612년 포교금지령을 내려 기독교를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카톨릭 신자들의 희생과 순교자는 몇만명을 상회하였다. 이렇게 일부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다가 명치유신 이후가 되어서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개신교의 경우 1859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기독교 선교에 열을 올렸으나 워낙 신불사상이 강하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 일본기독교의 신자수는 신·구교 합하여 전국민의 2%에도 미달하는 실태이다.

다음은 일본의 현대 신흥종교에 대한 내용인데, 일본의 신흥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기존의 종교와 비교하여 신종교라 호칭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흥종교로서는 창가학회, 입정교 성회, 생장의가, 진정일련정종, 오음진리교, 천리교 등인데 그 신도수는 모두 수백만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가학회나 천리교 등의 경우는 세계 각지역으로의 해외선교까지 성공하여 미국, 브라질, 한국, 대만 등에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문화청이 조사한 각 종교교단의 신자수는 신도계(信道係)가 1억 1천 19만명, 불교계가 9천 3백 11만명, 기독교계가 1백 42만명, 기타 종교가 1천 1백 38만명으로 총신자수는 2억 1천 7백 70만명이다.(1988 현재)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니까 일견하여 이 신도수에 대한 통계조사가 잘못된 것 같으나 되려 이 통계수치야 말로 일본인들의 종교관의 특징을 단적으로 들어 내 보이고 있다. 즉 신도계는 일본전체 인구의 91.6%이고, 불교계는 76.3%이니, 절과 신사(神社), 승려와 신주 등이 별개로 존재하면서도 이것들을 함께 숭배하므로써 일본 대개의 가정에는 불단과 신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일본은 신

12) _____, 위의 논문, p. 175.

13) 윤대규, "한국과 일본, 그 문화와 법", 《법과 사회》 제9권(1994. 5), p. 106.

도국이자 불교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종교 실태를 조사하고 보니 한국과 일본의 종교현상은 여러 면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한 예로서, 한국불교사찰은 일상적 삶의 터전인 도시 안이나 동네에서 멀리 동떨어진 산속같은 은둔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본의 사찰들은 도시나 마을내에 자리하여 민초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가까이 하고 있다. 일본의 불교는 흔히 장식불교(葬式佛敎)라 불릴 만큼 인간의 실제적 삶과 죽음의 예식에 밀착되어 있으나 한국의 장례의식은 불교식보다는 유교식의식에 더 근접해 있다. 기독교 분야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전파되었으나 현재 성도수가 1백만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의 기독교 성도수는 국민전체의 25% 수준인 1천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이와같은 종교부문에서의 이질현상과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배경과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는 하나의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예술

한·일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예술분야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지식 정보의 생산과 흐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이 일본의 예술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저작물은 <표1>에서 보듯이 모두 30종으로서 모두 조국해방 이후에 간행된 것들이다. 예술관계 단행본들은 1954년 간행된 유종렬 저서 「일본 민예관」을 위시하여 현재까지 모두 30종의 일본예술관계 단행본이 출간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일본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부족하였거나, 그 동안 일본과의 문화개방이 여의치 않아 예술분야의 교류가 용이치 않았다는 실상을 들어내 보인 증거일 것이다. 일본예술분야 연구 단행본들의 내용은 일본 미술사, 일본인의 미의식, 일본의 회화, 일본 현대 도예전, 일본무용의 기초연구, 현대 일본건축, 일본의 희극, 현대 일본디자인, 일본영화, 일본 서예사, 가부키(일본전통연극), 일본음악, 일본의 문화와 예술, 현대일본전통공예 등이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예술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단행본은 제1기(1900년대에서 1945년까지)에 이미 45종이 출판되었는데, 1910년에 간행된 「韓國鐘寫眞集」을 비롯하여 「朝鮮藝術之研究」 등이 있으며, 1911년의 「韓國藝術之研究」, 「朝鮮藝文志」 등 일본의 한국통치시기에 저들은 45종의 한국예술 관계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그후 제 2기(1946-1964)에는 단 5종의 저작물이 생산되었고, 제3기(1965-1984)에 72종, 제4기(1985-2000)에 72종, 그리고 발행년도 미상의 2종을 합쳐 지금까지 모두 196종의 한국예술관계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다. 단행본들의 내용은 한국예술의 연구, 조선의 도예(공예)연구, 서예(서도), 조선 서화가 열전, 조선경주의 미술, 조선미술사, 이조미술, 한국의 민속무용, 한국미술, 조선미술 박물관, 고려분화, 조선의 석탑, 조선의 연극, 한국음악탐구, 한국전통음악, 한국가요사, 조선의 청자, 국보 한국 7000년

미술대계 등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일찍부터 한국예술의 모든 부면을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왔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한국예술분야 중에서도 도자기(도예)관계의 서적이 84종으로서 이는 예술관계서적 143종의 58.7%로서 절반이상의 도서가 한국(고려백자, 이조청자등)의 도자기에 대한 조사, 연구서이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도자기(도예)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 흥미와 관심이 대단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일본의 예술에 대한 특성과 경향에 대해서 간략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초기 일본문화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씨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문화의 큰 부분인 예술분야 역시 옛 우리나라 예술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학설로는 김문길 편저 「일본문화의 이해」, 북한 학자 량연국의 「조선문화가 초기 일본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일본인 학자 矢野尊義 저 「日本文化의 脈과 韓國」 등의 저서내용을 보면 잘 서술되어있다.

특히 량연국은 조선의 선진문화가 후진일본의 문화발전예 영향을 준 역사적 시대는 대체로 신석기시대로부터 시작하여 고대와 중세기초기에 이르는 수천 년의 역사적 시기를 포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문화사에서는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조몽시대(기원전4,3세기 이전), 야요이 시대(기원전4,3세기경-기원3세기중 말엽-4세기 초), 고분시대(3세기말- 4세기초-7세기 중엽, 그중6세기초-7세기중엽은 아스카 시대라고 한다). 이 장구한 역사적시기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선진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하여져 낙후한 일본원주민들을 문명으로 인도한 관계였다. 조선사람들은 일본과의 교린관계를 맺은 중세기 후기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문화적 영향을 주어 중세기 일본문화 발전의 여명기를 맞이하게 하였다.¹⁴⁾

일본미술 역시 예로부터 대륙의 미술을 섭취하면서 그들 나름의 독자적 기법으로 日本畫라는 미술세계를 발전시켜왔다. 일본의 회화는 단색화와 채색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단색화는 하쿠묘(白描)와 수묵화로 분리되는데 하쿠묘는 먹물로 묘사선 만을 그린 그림이고, 수묵화는 먹으로 물체의 量感이나 공간을 잘 묘사한다. 채색화는 불화의 시초였고 헤이안시대에 유행했다. 야마토 그림(大和繪)이나 겐지모노 가다리에마키(源氏物語繪卷)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¹⁵⁾

일본의 풍속화는 죠카마치(城下町)의 성장시기에 교토시대의 서민생활을 그린 작품이 많았는데, 1574년 카노 에어토쿠(狩野永徳)화가가 그린 「落中落外圖屏風」이 대표적 작품이다. 그 후 근세의 작품은 히코네(彦根)의 〈병풍〉, 〈姿體美〉, 〈遊女〉, 마쓰우라(松浦) 등 걸작품들이 있다.

근대이후의 일본미술은 명치시대에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역시 서양화의 도입, 섭취에 있어서도 다른분야와 같이 그 모방적 적응이 뛰어났다. 요카쿠라덴싱(岡

14) 량연국, 『조선문화가 초기 일본문화발전예 미친 영향』. 서울 : 집문당, 1996. pp. 4~6.

15) 김문길, 『일본문화 이해』. 부산 : 부산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9. pp. 406~407.

倉天心이 주도한 동경미술학교 및 일본미술원은 일본회화를 주제로 한 일본미술의 근대화 추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일본미술은 大正, 昭和시대에 접어들면서 서양미술과 부단히 접촉, 교류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화려하고도 다채로운 일본회화가 제작되고 있다.

일본 조각은 대개 불교관계 조각이 대부분이다. 일본초기의 조각으로는 승문(繩文)토기시대의 土偶,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우수한 작품이 있으며, 그 외에 불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神像정도이다. 일본의 불상은 대륙의 것을 본받아 만들었고, 그 조각가들을 佛師라 했는데, 불상이 전해진 초기의 飛鳥時代의 것은 중국과 한국인의 자손들이 주로 담당했다. 700년무렵에는 야쿠시사(藥師寺)금당의 약사삼존(藥師三尊)과 성관음상(聖觀音像)과 같은 걸작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백제로부터 전해진 불상을 접한 지 실로 1세기 반이 지난 시기였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가장 빛나는 기념비적 조각으로 치고 있다. 목조로 제작된 「반가사유상」은 제작자 미상이나 실로 그 조각솜씨는 찬탄을 금치 못할 작품이다.

일본의 공예는 대륙 여러 나라의 영향과 자기들의 독자적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뛰어난 것들이 현존한다. 江戸時代에 제작된 색회등화문다호(色繪藤花文茶壺)는 국보급 공예도자기로서 걸작품이다. 칠공예품은 일본인이 그들의 감각과 취향에 맞게 개발하여 平安時代에는 오히려 중국에 보내졌다 한다. 도자기는 임진왜란때 조선의 도공들을 데려가서 일본각지에 정주시켜 일본도자기를 발전시켰는데,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있는 명품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조선의 도예기술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¹⁶⁾

일본의 건축은 紳士건축이 바탕이 되어 발달하였고 그 재질은 거의 나무이다. 일본은 목조건축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잘 발달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 융합에 마음을 쓴다. 일본인은 건축도 자연의 일부로 본다. 근세가 되면서 성행했던 아기자기한 茶室, 町室, 商街, 민가 등의 건축은 일본인의 독특한 서구적인 양식에 일본적인 건축기술을 가미하여 뛰어난 건축물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정원은 자연 경관을 축소하여 조성시킨 인공미가 엿보인다. 정원의 기반에는 원시종교에 기인한 자연숭배가 깃들여 있다. 그 특색은 자연의 세계를 하나의 한정된 공간 속에 응축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본의 연극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무악(舞樂)을 비롯하여 노(能), 교겐(狂言). 인형극, 가부키(歌舞伎), 각종 민속예능 등 전통예능과 신파, 서구식 오페라, 발레, 대중연극, 소녀가극(少女歌劇)등의 현대연극, 나아가서는 학교연극, 아동극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일본연극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기타 여러 외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혼합 발달하여 온 것이므로 순 일본적인 요소와 외래적인 요소를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음 일본영화는 오늘날 너무 대중화되었다고나 할까? 상술면이 짙고 상당히 저질적인 것

16) <http://www.jils.co.kr/japan/information/culture/64.htm>(2001. 11. 5)

이 많다. 일본영화의 제작은 1899년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사실 영화가 많았다.¹⁷⁾ 일본초기의 극영화는 신파극(新派劇) 계통의 현대극과 일본의 전통극인 가부키 계통의 시대극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일본영화 역사의 제1기는 영화가 수입된 1896년부터 <활동사진>이라 불리어진 1918(大正7)까지이다. 제2기는 무성영화시대이고, 제3기는 최초의 본격적인 발성영화로서 1931년 五所가 제작한 <마담과 아내>이지만, 시마즈 야스지로(島津保次郎)의 <폭풍속의 처녀> (1932) 및 1934년 <옆집의 八重>의 출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까지이다.¹⁸⁾ 일본영화는 종전후 혼란기를 수습하고 재기했을 때, 제2기의 탄생과 더불어 국제 영화제에 黒澤明의 <라쇼문>을 출품하여 195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오늘의 일본영화는 이제 그 존재양식이 크게 변용되고 있다. 많은 군소 독립프로덕션에서 적은 돈을 들여 제작한 영화라 하더라도 이색적인 제재를 중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면 좋은 흥행성적을 올리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의 음악은 대체로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양악), 둘째, 양악, 즉 유럽전통음악, 셋째, 전통음악 중에서도 민요, 동요, 민속예능 등의 민속음악을 가리킨다. 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전대(前代)의 다양각색의 음악을 보존, 발전시켜왔으나 양악의 급격한 물결에 밀려 일본전통음악은 큰 시련을 겪었다.

大正時代로부터 昭和時代에 걸쳐서는 일본음악문화의 주류가 거의 양악쪽으로 옮겨져 이에 자극을 받은 일각에서는 전통음악 창조의 기운이 일고 있다. 서양음악에 침식된 일본의 전통음악을 되살리기 위하여 신일본 음악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음악을 외국에 소개하기도 하지만 큰 성과는 없으며 결국 일본음악도 세계음악시대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대중음악이 우리나라 등 여러 외국에 보급되어 일본문화의 수용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된 일본대중음악 <가라오케>의 보급위력은 대단하다. 이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우리가요의 건전한 발전과 보급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 한국적 대중음악의 일본 및 해외진출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어학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불행이 2차대전 종전에 의하여 그 종막을 내린지도 어언 57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조국 광복 후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상태에 있다가 국교가 정상화의 궤도에 오른지도 금년이 37년째인가 보다. 현실적으로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서 바람직한 교류가 성

17) 김문길, 앞의 책, p. 355.

18) _____, 위의 책, p. 358.

립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양식과 아량이 필요하다. 서로가 상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언어와 문자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국은 한자문화 및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저마다의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 생활패턴, 국민정서,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므로 이러한 간격을 좁히고 보다 발전적인 상호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언어를 잘 연구, 학습하여 이를 매개로 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선린교류관계를 돈독히 해 나아가야 한다.

일본어는 처음 배울 땐 쉽게 느껴지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제법 난해하고 복잡하여 잘 진척되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곤 한다. 그것은 아마도 일본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잘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문화의 실체와 정수를 잘 체득, 이해치 못한 소치인 것이다. 타국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사회 문화, 국민정서를 잘 이해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고 문법체계를 익히고 이해하여도 무언지 확실하지 않고 한 구석이 석연치 않은 점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 온 그 민족의 성격, 정서, 사상, 관습 등 그 민족이 가진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충분히 숙지하여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저마다 독특한 전통과 독자적인 생활습관, 국민정서를 가지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접촉하고 교류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단어 중에는 우리 언어와 어원, 발음, 뜻이 같거나 유사한 낱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일본서기(日本書記)의 와가(和歌)나 신라향가(鄉歌)는 그 해독법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심지어 일본어전문 연구자인 金仁培는 '일본서기 고대어(古代語)는 바로 韓國語이다' 라고 주장하는 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한·일간의 역사 흐름 속에는 별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언어에 관련된 특이한 사례로서는 明治 18年(1885)에 일본어의 폐지를 주장한 당시 문무대신이었던 森有禮 같은 인물도 있었으며, 일본 패전 후 昭和 21年 4月에 발행된 「改造」誌에서 志賀直哉는 일본어를 금지하고 프랑스어를 채용하자는 기발한 글을 싣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어가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고 사용에 불편이 많아 그의 40년에 걸친 문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통감하였노라고 술회한 바 있다.¹⁹⁾

한일간 어학관계 단행본을 중심으로 「어학」 분야를 분석,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에서의 일본어학 연구는 구한 말부터 양국의 교류관계로 인한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으며, 일본어에 대한 본격적 관심과 연구, 학습행위는 1970년대에 대두되어 198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73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입시과목으로 일본어가 제2외국어과목에 포함되면서 일본어 선택 학습생이 전폭적으로 증가되어 이 관계 어학교재가 다종다양하게 출판되었다. 또한 대학(원)에 일본어 관련학과 및 교양과정에 일본어 강좌가 개설

19) 名越二荒之助 編著, 『日韓 2000年の 眞實』. 東京: ヴコビタ-出版社, 1997. p. 433.

되면서 일본어 수강생이 증가하였고, 한·일간 각종분야에서 교역 및 상호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일본학 형태의 한 부분으로 일본어학연구가 대학 및 관련 학회,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어학분야 저서는 현재 총 129종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서적들을 통틀어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 정리하고자 한다.

저서내용을 분석, 검토한 결과 「일본어 연구」 분야의 책이 가장 많았다.

「일본어 연구분야」 범주에 속한 책의 내용들은 일본어의 문법체계, 일본어 주제조사, 술어의 유형, 음운변화의 법칙, 접속사 연구, 조동사 연구, 조사연구, 격조사 연구, 종조사 연구, 경어 행동대조연구, 피동표현대조연구, 대조음성학 연구, 의성어·의태어의 한·일 양국어의 대조연구, 사동법 대조연구, 한·일 고유어 접속사 의미 기능에 관한 대조고찰, 관용구에 대한 고찰, 일본 고대어 연구, 일본어의 역사적 구조, 일본 고대문자 연구, 일본어의 원류와 어원연구, 일본어계 외래어의 액센트에 관한 고찰, 일본어학의 현황과 과제 등이다.

두 번째로는 「한·일 양국어의 유사성, 친근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시 한·일 양국어 동계론, 한·일 쌍방향 기계 번역 시스템 연구, 우리말 속의 일본말 연구 등이다.

다음으로 일본한자어의 연구(1945자를 중심으로)분야로서는 일본어의 한자론, 한문교본, 한문대조분석 관계의 저서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 일어학개론, 일본어문법, 구어문법, 고전문법, 일본의 언어와 문학, 일본언어와 문화, 일본어 교육, 일본서기의 이두식 표기, 일본사회언어학 전개, 재일 한국인의 언어생활 실태, 일본어의 진상, 신 일본어학의 이해, 일본서기 고대어는 한국어, 일본어 작문대사전, 일본용어사전, 최신 대학일본어, 관광일본어 회화, 현대일본어 회화, 현대 일본어 교본, 교양일본어, 일본어 교본 따위와 같은 일본어 학습교재들도 그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이상과 같은 주제와 내용을 취급한 일본어학관계 문헌을 조사, 탐색하여 그 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아직 탐색되지 않은 문헌들도 얼마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학 관계 문헌을 조사, 탐색하여 그것을 분석, 평가한다는 것은 일본어학관계 전문연구인이 아닌 필자로서는 내용 서지학적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다. 다만 어느 주제분야에 관한 어떤 문헌들이 한·일 양국에서 출판되었는지? 그 출판정보(출판목록)를 수집, 정리하는 데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문헌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한계 범위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참고로 고려대학교 이한섭 교수의 편저서 「韓國 日本語學關係研究文獻一覽」에 수록된 일본어학관계 단행본은 모두 151종(역서는 제외)으로서, 일본어학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따른 내용별 종수는 다음과 같다.

언어학, 일본어학개론 9종, 계통연구, 한일어의 교류문제 35종, 한일어의 대조연구 2종, 회갑 및 정년퇴임기념논문집(단행본)이 12종, 일본어사 17종, 음성, 음운 11종, 문자·표기 6종, 어휘·용어 4종, 문법 26종 방언 1종, 일본어교육 21종, 언어생활 9종 기타 5종으로써 도합

151종이 수록되어 있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각기 자신들의 언어를 갖고 있다. 그들 언어는 어떤 규칙(문법체계)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본어는 우리말과 어법구조가 비슷하여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것보다 배우기가 한결 쉽다고 알려져 있으나 서술언어(書きことば; 文字言語)로서의 일본어는 음운과 표기가 복잡기과하여 실제로는 학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²⁰⁾. 위에서 일본어학 관계 문헌 내용을 열거하였는데 일본어학 연구나 어학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이들 문헌들은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일본어의 기원과 계통에 관여한 여러 학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여러 전적을 토대로 조사, 정리해보면 다양한 학설이 발표되고 있다. 즉 北方語系說, 南方語系說, 北方·南方語系 혼합설이다. 그 외에도 스키모토 쓰토무(本杉つとむ)의 렵차(lepcha)語 기원설, 알타이어·한국어 관련설, 언어연대학적 기원추정설, 4개문화설 등이 있다.

다음은 일본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해방 후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오다가 1961년 한국외국어 대학에 일본어과가 개설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해 1962년 국제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설치되었으나 지망생의 수도 적어 일본어교육은 거의 미미한 실태였다. 본격적으로 일본어교육이 활성화 된 계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로 일본어가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1999년 전국적으로 66개 대학, 82개 학과(日本學, 日本教育學, 日語日文學科, 外國語教育科日語專攻, 日本學科, 日本文芸科)가 개설되었고, 현재는 98개 대학에 일본관련 학과가 있으며 한국·일본학회 회원수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 외 제2외국어 또는 교양과목의 한 과정으로 日本語를 가르치는 대학이 수없이 많아 오늘날 일본어를 배우는 대학생 수는 연간 약 15万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교육의 역사적 경과는 조선왕조 말엽부터 시작되어 일본의 강압적 통치기에는 보편적으로 실시되었고 구한말 정부가 제도권내에서 일본어교육을 실시한 것은 1895년에 일본어 학교가 설립되었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 후에는 모든 관공립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쳤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소위「國語」라는 용어로 채택되었으며, 드디어 1938년에 한글은「朝鮮語」라는 명칭하에 선택과목으로 전락되는 굴욕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그러다가 1941년에 이르러「朝鮮語」는 선택과목에서도 제외되는 치욕적 비운에 봉착하였고, 日本語는「國語常用」의 시대를 맞아 최고 최상의 위력으로써 우리 민족의 말과 혼을 수탈, 마비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이와같이 일본어 교육이 활발하게 교습되고, 그 당시 모든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일본어 교육 관련 도서가 어느 분야의 서적보다 많이 출판되었다.

20) 加藤彰彦 等編, 李德奉 等譯, 『日本語學의 理解』. 서울: 法文社, 1992. p. 26.

이처럼 일본어 학습, 일본어 교육 및 연구관계 문헌은 다종다양하게 대량으로 출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千守城教授는 그의 「韓國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位相」이란 논문에서 일본어 교육이 양적 발전에 비하여 질적 발전의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금후 일본어교육의 방향과 내용면에서의 재검토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²¹⁾

그러나 일본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한국어 연구동향은 우리의 일본어 교육과 연구실적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일본 각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해 보면, 전공학과와 전공코스를 설치한 대학은 사립대학 4개 대학밖에 없다. 학과와 과목명칭은 <朝鮮語學科>, <朝鮮學科>, <朝鮮語>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공과정으로 한국어(조선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東北大學을 비롯 도합 43개 대학이다. 이들 중 국립은 10개 대학, 공립 5개 대학, 사립은 28개 대학이 된다.²²⁾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88국제올림픽대회를 전기로 붐이 일어났고, 최근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를 맞아 한국어 학습 희망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한국어 교육 내용은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목적달성과 정치적 야욕성취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했으며, 교육적·학술적 입장에서의 접근은 1975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문학

문학분야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에 대한 경향과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이란 인간이 어느시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살아 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치밀하고 진지하게 사색하거나 탐구하는 인간들의 삶의 궤적이며 그 구체적 묘사이다. 이러한 문학적 내용과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문학을 잘 이해함으로써 상대 나라의 역사, 문화, 국민성, 정서, 기질, 환경적배경 등을 잘 이해하게 된다. 한 국가의 전반적 실상을 잘 파악하려면 그 나라의 예술이나 문학작품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란 지적인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한·일간의 문학관계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학연구관련 단행본을 계량 서지학적으로 조사·분석하려는 것이지, 그런 작품들의 내용을 연구하여 학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문학사적 연구나 문학비평론적 연

21) 千守城, 「韓國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位相」, 《日本研究論叢》3輯(1989. 12), p. 65.

22) 梁淳秘, 「日本에서의 韓國學 研究動向」, 《제주대학교 논문집》제26집(1988), p. 51.

구 또는 비교문학적 연구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일간 문학관계 단행본에 대한 서지적 분석은 다음<표 2>, <표 3>과 같다.

<표 2>한국에서 생산된 일본문학관계 단행본(장르별, 시대별 구분)

년도별 장르별	1900-1945	1946-1964	1965-1984	1985-2000	연도미상	계
시(가요)			5	10		15
소설			3	13	1	17
수필			1			1
희곡				2		2
평론(비평, 연구)			5	33	1	39
기타(일반)		2	3	14		19
계	0	2	17	72	2	93

<표 3>일본에서 생산된 한국문학관계 단행본(시대별 구분)

년도별	1900-1945	1946-1964	1965-1984	1985-2000	연도미상	계
계	55	7	31	33	0	126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문학관계 단행본에 대한 장르별 구분은 <표 2>에 의하면, 시15종 소설 17종, 수필 1종, 희곡 2종, 평론(비평, 연구, 이해)39종, 기타(문학일반, 문학사연구, 비교연구 등)19종으로써 모두 93종이다. 이들 중 1965년에서 1984년에 출판된 도서는 17종에 불과하나 1985년 이후 2000년까지는 72종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본 연구원이 조사, 취합한 일본문학관계 단행본의 주제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문학사 9종, 시관계 15종, 비교문학 13종, 소설관계 17종, 일본문학 및 평론, 연구 18종, 일본고전문학 5종, 일본신화 2종, 근대작가연구 3종, 일본 프로레타리아 문학 2종이며 나머지는 대개 한 종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주제분야의 연구, 조사가 비교적 저조했음을 보여준다. 조사, 연구가 미미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 한문학사, 한·일 문학교류 양상, 동아시아 문학 기본기도, 문학사회학, 일본 사회주의 문학, 일본근기문학연구, 언어와 문학, 한반도 관련 일본 설화집, 일본의 언어와 문학, 구전문학, 민담, 전환기 동아시아문학, 동화, 희곡, 문학과 사회, 친일문학론, 애항소설연구, 동양문학 비평용어사전 등이 조사되었다.

일본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일본인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문학을 연구함은 일본인들의 삶의 문제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 사상, 이념, 사고방식 등 모든 것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일이다.

또한 문학사란 문학의 발자취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문학에 대한 가치비판의 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학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학의 생성·발전하는 과정이고, 역사는 사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문학을 통해 우리는 그 사회나 시대상을 통사적으로 개관하고, 또 각 작품을 통해 그들의 사상과 삶의 궤적을 더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이한섭의 『韓國日本文學關係研究文獻一覽』은 1945년 이후 한국인이 연구발표한 일본문학관계 자료를 수집, 정리한 참고도서로서 일본문학을 학습하거나 연구하려는 한국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이한섭교수의 저서내용은 1945년부터 1999년 6월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일본문학관계의 단행본, 번역서, 논문(석, 박사학위 논문 포함)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 연구진이 조사한 문학분야 단행본(번역서 제외)은 93종인데 비하여, 이한섭교수의 저서 및 역서는 모두 139종이다. 이 중 번역서가 31종이니 저서는 108종이 된다. 단행본 108종의 내용을 유별해 보면 일본문학일반이 57종, 上代文學이 10종, 中古文學이 1종, 中世文學이 3종, 近世文學이 6종, 近代文學이 33종, 比較文學이 11종으로 되어있다.²³⁾ 이들 중 1960년대의 연구저서가 3종, 1970년대가 7종, 나머지 98종은 모두 1980년대 이후의 간행도서들이다. 일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저서는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집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일본문학연구자료들을 통하여 일본문학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일본문학은 긴 역사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내용과 색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국민성은 날카로운 직관과 섬세한 감각, 숨겨 있는 재능으로 세부에 충실한 잔재주와 섬세한 작품세계를 형성하는데 장기를 보여 왔다. 일본문학은 한국문학과 사뭇 다르다. 일본문학은 섬세하며 자연관찰에 뛰어나고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묘사하는데 익숙하다.²⁴⁾ 일본문학은 소형이고 정교하며 정서적이다. 한 방울의 물에서도 우주를 파악한다는 함축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와카(和歌), 하이쿠(俳句)와 같은 단형시를 다듬어 내는데 성공했지만, 그 반면 논리적, 구성적이지 못하며, 장대성, 격렬성, 엄격성에 뒤진다.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고대후기에서 중세에 걸친 문학은 인생의 희열을 묘사하기보다는 늘 죽음을 다루고 죽음을 의식하는 허무주의가 깔려 있기도 하다. 무사계급의 지배하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제된 신흥 근세 서민문학은 물질적 욕구의 추구에서만 탈출구를 찾았고, 체념관과 회화화된 조소적 경향으로 흐르기도 하였다. 명치시대 이래의 일본문학은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전통적 결합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문학의 영향을 받아 서양의 모방적 작품으로 조화를 도모하면서 발전하고 변천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일본문학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德川家康), 199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오에 겐자부로오(大江建三郎)의 작품은 일본문학의 위상과 명성을 널리 떨친 것으로 우리로서는 부러움과 찬탄을 금할 수

23) 이한섭 편, 『韓國日本文學關係研究文獻一覽』,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pp. 3~11.

24) 崔在喆 『한일 단시형 문학의 재조명, 일본근대문학 산책 3』, 한국외대 일본근대 문학회, 1996, 5, pp. 147~153

없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문학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따위를 불식시키고 일본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일본문학의 세계화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우리 한국문학도 질과 양적인 면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문학적 진수와 향기를 국제적으로도 널리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한국문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특히 밝혀 둘 내용은 재일교포 작가로서 작품 「다듬이질하는 여인」(1971)으로 신인등용의 권위 있는 아쿠타가와(芥川)문학상을 받은 이희성을 비롯하여 이양지, 김달수, 김석범 등은 일본문학에서도 한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일본인 작가로서 한국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남긴 이는 나츠메 소오세끼, 가와바타 야스나리, 후루야마 코마오 등이 있다. 그리고 在日朝鮮人文學이란 말이 「戰後史事典」(三省堂)에 「在日の文學」이라고 나와 있다. 在日韓國·朝鮮인이 쓴 작품은 민족적 아이덴티티, 즉 위기의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뇌와 저항을 강하게 담고 있다. 「光の中に」(1939)을 쓴 金史良은 그 최초의 주자이며, 그 외 金時鐘, 金泰生, 金鶴泳, 高史明, 李良枝 등이 있다. 林浩治의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論」(新幹社)은 재일조선인문학을 본격적으로 논한 드문 논집인데, 표제에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재일조선인문학은 「누가」(작가론), 「어떤 말로」(용어론), 「무엇을」(주제론)이란 3개의 문제의식 범위 내에서 논의함이 이들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일반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국내에서 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연구되고 논의됨은 작품이 일본국내에서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문학의 표현 언어가 전부 일본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재일조선인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 <표 3>은 일본에서 생산된 한국문학관계 단행본의 시대별 구분인데, 일본문학에 있어서는 장르별 구분은 생략하였다. 그것은 필자가 조사한 126종의 일본인이 저술한 한국문학관계 단행본을 전부 조사, 분류 할 수 없었던 한계 때문이었다. 다만 시대별 구분 상 드러난 계량 서지적 고찰은 서기190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한국 문학관계 단행본은 전부 55종이고, 일본종전 후 지금까지는 모두 71종인데 한·일 국교이전에는 불과 7종이고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64종으로서 한국문학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단행본이 비교적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제 한·일간 문화가 개방되었으니 향후에는 한국문학관계 서적이 그 이전보다 더욱 많이 출판되리라 예상된다.

IV. 결 론

한·일 양국이 지난 100년 동안(1900년에서 2000년까지) 상대국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결과로 생산해 낸 다양한 분야(본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14개 주제를 설정)에 걸친 지식정보의 경향과 추이를 분석하고자 관련 문헌들을 샅샅이 조사, 취합하여 이것들을 4가지 카테고리(문화, 철학·사상, 종교, 예술, 어학, 문학)로 구분하여 양국의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에게 분담된 문화분야를 다시 소주제로 나누어 1)문화, 2)철학·사상, 3)종교, 4)예술, 5)어학, 6)문학 이렇게 6개의 소주제 분야에 관련된 문헌내용을 분석하고 그 추이를 해석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편의상 일본문화 전반을 총론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 해석하려 한다.

첫째, 한국의 일본문화 분야 관련 단행본은 총 592종이고, 일본의 한국문화분야 단행본은 총 999종으로서 일본이 한국보다 407종(약1.7배) 더 많이 생산하였다.

둘째, 시기별로는 제1기(식민통치기 : 1900-1945)동안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관련 간행물은 전무하였던 반면 일본은 337종을 생산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의 한국 강점기로서 그 당시 문화수준이나 모든 부문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월등히 발전, 진보하였고,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을 억압, 수탈당한 문화적 정체기였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은 제2기(단절의 시기 : 1946-1964)동안 불과 30종의 단행본을, 그리고 한국은 11종의 단행본을 생산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패전국가로서 심대한 타격을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교단절상태의 한국문화를 연구할 여력이나 관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며, 한국 역시 일본을 연구하거나 일본문화관계 도서를 생산할 분위기와 현실적 요구와 필요성도 극히 미약하였다. 36년간의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반일감정과 항일사상이 엄연히 잔존한 상황하에서 일본문화에 대한 연구물이 거의 생산되지 않았음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제3기(탐색의 시기 : 1965-1984), 제4기(교린의 시기 : 1985-2000)에 들어와서는 한국은 89종, 일본은 246종의 도서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제1기인 식민통치시기에 337종을 생산한데 반하여 제3기 246종, 제4기 382종을 생산하였는데 제1기인 식민통치시기의 생산량이 전체의 33.7%를 점유하였으나 제2기 동안에는 전체의 3%인 30종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국내외적 상황이 호전되거나 안정적인 국면에서는 각 분야의 연구물이 활발히 생산된다는 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사실이 입증되었음이다.

다섯째, 제4기(교린의 시기 : 1985-2000)인 최근의 경향은 일본이 382종임에 비하여 한국은 488종을 생산하므로써 오히려 일본보다 106종 더 많이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문화분야

의 조사, 연구 활동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러한 추세와 현상은 일본이 오늘날 세계적 일류 국가이니 선진 일본을 연구하고 배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상호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일본의 한국유학생 수만 하여도 1만5천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대학 총98개 대학에 일어 일문학과가 개설되어 석·박사 과정도 모두 33개 정도이니 이에 소속된 교수, 학생, 석·박사 과정의 재학생, 졸업생들이 일본관계 조사, 연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상호교류가 빈번한 형국이므로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관련 연구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음은 자연적 현상일 것이다.

다음은 일본문화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첫째 이중성(二重性)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기회주의적이며, 합리주의 사상이 강하면서도 기복적, 미신적 신앙이 공존하고 있으며, 유교와 불교 같은 고등종교의 의식과 외관을 가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신도나 무사도와 같은 민족적인 윤리가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실체가 되고 있다.²⁵⁾ 즉 상황주의적 사고와 기복적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둘째, 일본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위의 이중성의 또 다른 측면이다.

셋째, 일본문화는 무사도정신을 그 기저로 하는 武家文化, 조상숭배와 그것의 발전형식인 신도주의를 숭상하는 일본식 宗教文化 및 茶道文化이다.

넷째, 일본의 문화발전 내용은 저들 고유의 문화에 외래문화를 취사선택하여 자타의 문화적 갈등과 반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목, 수용하여 저들 특유의 보편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 한·일간 문화개방의 문도 본격적으로 일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일본문화가 물밀 듯 쏟아져들어 올 것에 대비하여 보편을 위장한 일본의 특수 문화 침투와 부작용에 대한 우리 문화의 위상확립과 질적 수준의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을 있는 그대로 과감없이 이해하고 조사, 연구하여 일본의 실체와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본 연구진이 기울인 노력과 정성의 결실은 향후 일본을 연구하거나 일본인을 상대하여 어떤 과업을 수행하려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과 참고자료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함>

25) 윤대규, 앞의 논문, p. 107.